

세계 홀린 K-웹툰...네이버·카카오 '아시아 디즈니' 탄생 예고

전세계적으로 MZ세대 중심으로 사랑받는 콘텐츠로 급부상

한국에서 발원한 웹툰...네이버·카카오 글로벌로 영토 확장

K-웹툰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마블·DC 코믹스로 대표되는 미국과 만가(만화)의 나라 일본을 홀린 것은 물론 유럽, 동남아 등 전세계적으로 MZ세대를 중심으로 사랑받는 콘텐츠로 급부상하고 있다.

'웹(Web)과 만화를 뜻하는 '카툰(Cartoon)'이 합성된 웹툰이라는 신조어는 드라마·가요·영화에서의 한류와 달리 발원지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더 뜻깊다.

특히 그 중심에는 한국의 양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다. 영화, 드라마, 게임, 캐릭터사업 등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한 K-스토리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국에도 제2의 디즈니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세로 스크롤 방식의 한국만의 작화 양식 탄생

유안타증권과 IT업계에 따르면 웹툰은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아마추어 작가들이 개인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서 직접 본인들의 만화 작품을 선보이는 과정에서 시작했다. 웹툰은 기존 출판 만화 형식에서 탈피해 칸과 책장 개념을 없애고, 대신 세로 스크롤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읽는 작화 양식을 적용했다. 이들 아마추어 작가들은 기성 출판만화 작가들처럼 수입을 목적으로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만들되보다 자신들이 소용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주력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만화가 탄생할 수 있었다.

◇세로 스크롤 방식의 한국만의 작화 양식 탄생

한국의 웹툰은 웹소설과 함께 2003년 이후 인터넷 포털로 빠르게 편입되며 플랫폼화가 이뤄진다. 만화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포털은 야후코리아로 전해진다. 말년·주호민 등의 작가를 발굴하며 웹툰서비스를 이끌었다. 이후 다음의 '만화속세상'이 바통을 이어받았고, 2005년 네이버가 합류하며 국내 웹툰·웹소설 생태계가 조성됐다. 최종적으로 네이버와 다

음(현재 카카오)이 포털시장 강자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웹툰 시장에서도 선두 플랫폼의 위치를 점유하게 됐다.

◇아이폰 등장과 함께 확산 본격화

웹툰 플랫폼의 성장은 2009년 아이폰3GS의 한국 출시를 계기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며 본격화됐다. 특히 웹툰의 세로 감상 방식은 세로로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의 화면을 가진 스마트폰에 적합, 출판 만화 디지털본 대비 가독성이 뛰어났다. 또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시점에 어디서든 감상할 수 있는 것도 빠르게 확산된 요인이다.

◇'기다리면 무료' 전략으로 유료화 안착

수익 모델도 구축된다. 기존 웹툰과 웹소설은 포털의 구색을 맞추고 트래픽을 올릴 용도로 쓰이던 미개성 콘텐츠였던 관계로 광고만이 유일한 수익원이었으나, 2012년부터 유료 결제를 해야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후발 주자인 카카오페이지가 2014년 도입한 '기다리면 무료' 과금 모델은 2010년대 후반 들어 한국 웹툰·웹소설 산업의 대표적인 수익 모델로 자리 잡았다.

기다리면 무료를 작품의 초반 몇 화를 무료로 공개한 이후, 무료 콘텐츠를 다 본 독자에게 일정 시간을 기다리면 다음 회차를 무료로 볼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며 다음 회차를 즉각적으로 보길 원하는 독자에게 과금하는 부분 유료화 모델이다. 다음화 내용을 바로 보고 싶어하는 많은 독자가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중소형 유료 웹툰 플랫폼 등장으로 외연 확대

2013년부터는 레진코믹스를 필두로 중소형 유료 플랫폼들이 등장했다. 레진코믹스는 네이버·다음에서 연재하기 어려운 성인물도 도입했다. 성인 콘텐츠는 레진 외에도 탐툰·블툰·투믹스 등 여러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국내 웹툰·웹소설 플랫폼은 36개에

달한다. 작가 입장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원하는 장르의 작품을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네이버, 세계 1위 웹소설 플랫폼 인수... "세계 최대 스토리텔링 플랫폼사 탄생"

2014년을 기점으로 K-스토리의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된다. 네이버웹툰은 2013년 일본 시장에 진출하고, 2014년 글로벌 웹툰 플랫폼을 출시하며 글로벌 무대에 섰다. 현재 구글플레이 앱마켓 만화 분야 수익 기준 100개 이상 국가에서 1위를 기록 중이다.

네이버웹툰 지난해 거래액은 8200억원으로 원래 목표(8000억원)를 초과 달성했으며 연간 1조원 달성 시점 또한 훨씬 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네이버는 미국을 본진으로 삼아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울 계획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5월 미국 법인 '웹툰엔터테인먼트'에서 글로벌 웹툰 사업을 총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래 웹툰 서비스를 총괄하던 국내의 '네이버웹툰'을 비롯해 일본·중국 법인도 웹툰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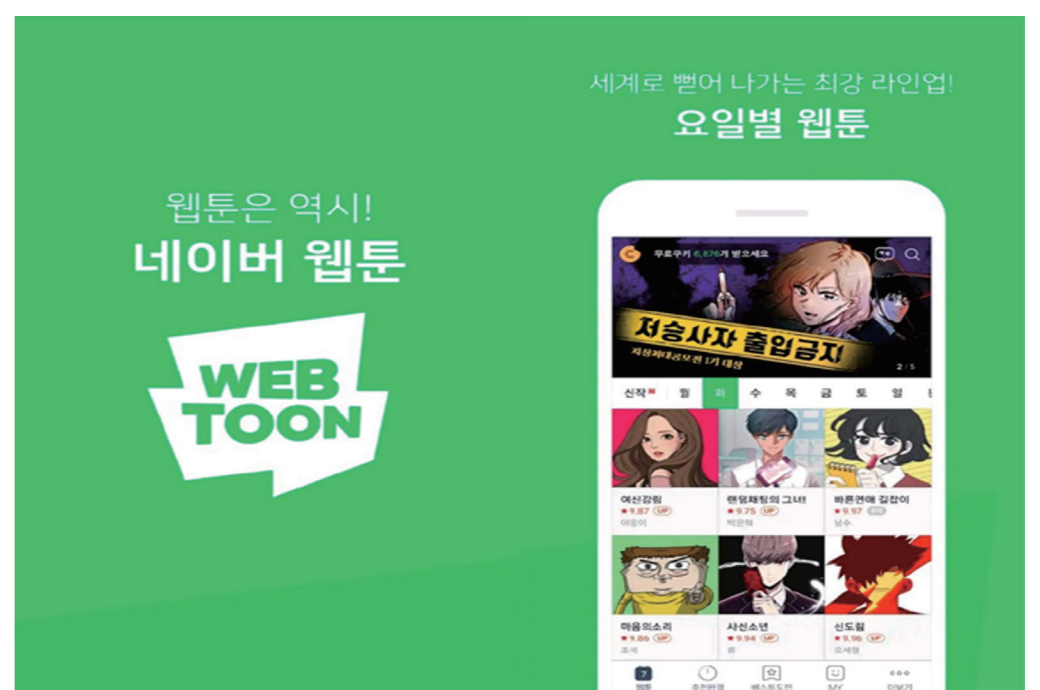
네이버는 지난 21일에는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세계 1위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를 6600억원에 인수했다. 이로써 네이버는 세계 1위의 웹툰 플랫폼과 웹소설 플랫폼을 모두 품에 안으며 명실상부 글로벌 최대 스토리텔링 플랫폼 사업자가 됐다.

네이버웹툰 김준구 대표는 "네이버웹툰은 왓패드를 통해 한층 더 다양한 글로벌 스토리텔링 IP를 확보하게 되었다"면서 "왓패드와의 시너지를 통해 기존에 네이버웹툰이 가진 IP의 다각화 역량이 강화되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지·카카오M 합병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오는 3월 출범...글로벌 공략

카카오 역시 해외 시장 개척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신인 작가의 역량을 키우는 네이버와 달리 기성 전문 작가들의 대차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카카오의 지난해 웹툰·웹소설 거래액은 5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미, 중화권, 동남아, 일본 등 10개국에 진



◇2020년 K- 웹툰 글로벌 전파 원년

출해 있다. 특히 일본에 진출한 웹툰·웹소설 플랫폼 '픽코마'는 지난해 일본 앱 시장에서 비게임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카카오는 올 들어 글로벌 종합 콘텐츠사로 거듭날 체비에도 나섰다. 지난달 25일 자회사인 웹툰·웹소설을 운영하는 카카오페이지와 다수의 연애기획사, 제작사를 보유한 카카오M을 합병, 종합 콘텐츠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출범시킨다고 선언했다. 합병은 내달 1일 완료될 예정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출범은 카카오가 '국민 메신저' 기업에서 글로벌로 무대를 본격 옮기겠다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글로벌 사업 혁신을 위한 김범수 카카오의 장의 또 한 번의 승부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배고픈 만화가라는 옛말...역대 고소득 전문직 부상

배고픈 만화가라는 말은 사라졌다. 웹툰 작가들은 저작권료뿐 아니라 광고·유료화·2차 판권과 같은 수익 모델이 하나씩 증가하면서 직업으로서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게 됐다. 최근 역대 연봉을 받는 웹툰 작가는 초등학교생의 장래희망직업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인기다. 실제 지난 2019년 기준 네이버 연재 작가(359명)의 연평균 수입은 3억1000만원이다. 이중 62%인 221명이 연 1억원 이상을 벌었다.

최근 수년간 웹툰은 드라마·영화·게임 등 이중 콘텐츠로 재창작되면서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를 통한 부가 가치 창출이 용이한 콘텐츠로 조명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웹툰은 작품을 영상화한 2차 저작물로 더욱 인정받은 한 해였다. 참신한 설정과 스토리로 검증받은 웹툰 원작 드라마가 10편 넘게 쏟아졌다.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는 최고 시청률 16.5%, tvN 새 주말극 <철인왕후>는 3회 만에 시청률 9.0%를 기록했다. 카카오TV의 <연애혁명>과 <머나머기> 등도 원작의 선풍적인 인기로 힘입어 화제다.

K-스토리 원작은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를 타고 세계를 휩쓸고 있다. 가령 동명의 네이버웹툰이 원작인 10부작 드라마 <스위트홈>는 지난달 18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후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방영 나올 만에 한국을 포함, 베트남·홍콩·카타르 등 11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고, 프랑스 미국 등 북미 유럽 지역에서도 톱 10위에 올랐다.

작가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양한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웹툰 IP는 앞으로 영화·드라마·게임 등으로 활발하게 재창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스토리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콘텐츠 시장의 역동성을 더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민정기자

현대건설기계 '자율굴착기' 시대 앞당긴다

ICT 활용한 '머신컨트롤' 굴착기 국내 첫 인도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 현대건설기계가 첨단 제어기술인 머신컨트롤(Machine Control)을 적용한 굴착기를 출시, '자율굴착기' 시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머신컨트롤은 음성장치와 있는 스마트건설 분야의 핵심기술로, 현대건설기계가 이번에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해 가격경쟁력을 크게 높임으로써 늘어나는 스마트 건설장비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머신컨트롤을 굴착기는 디지털 센서와 전자유압시스템 등을 통해 굴착기의 자세와 작업지점 등을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평탄화 작업이나 판로 작업, 터파기 작업 등을 반자동으로 수행한다.

또한, 별도의 측량 입력 없이도 원하는 작업의 깊이나 기울기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땅의 높낮이를 파악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서선욱기자

이번 설엔 전·부침개 대신 도미노피자

'소소 피자' 등 프리미엄 피자 1만원 ↓ 온라인 기준·신규 회원 대상 쿠폰 지급

배달 피자 브랜드 도미노피자가 8~14일 설맞이 프로모션을 연다. 홈페이지 회원에게 모든 프리미엄 피자 L 사이즈 주문 시 사용 가능한 1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기존 회원은 물론 이 기간 신규 가입 회원도 해당한다.

주문 대상 피자 중에는 '소소 피자'도 있다.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를 맞이해 한정판 제품이다. 소고기 토핑이 메인인 '직화 스테이크 피자'와 '블랙앵거스 스테이크 피자'를 한 판에서 즐길 수 있게 한 하프 앤 하프 제품이다.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도미노피자를 사랑해주는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할인 쿠폰을 준비했다"며 "아직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 기간 안에 가입하면 1만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가입하기 바란다"고 권했다.

최이슬기자



남광주 새마을금고, 제 23차 정기총회

부의 3호 안전 서면 의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체제 강화로 정상적인 총회가 어려운 실정에서 남광주 새마을금고는 제23차 정기총회를 6일 9시부터 12시까지(3시간), 본점 1층과 3층에서 1,399명의 회원이 참석해 거리 두기 시책에 따라 순차적으로 금고에 입실하여 회원 명부에 등록하고 부의 3호 안전에 찬반 서명하는 서면 의결 총회를 했다.

코로나 19 확산 때문에 정상적인 정기총회를 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남광주 새마을

금고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1월 27일에 전 회원에게 제23회 정기 총회 서면 결의에 따른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해 회원들이 서면 결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총회에 참석하게 했다.

회원들은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지키며 입실하여 서면 결의에 서명하고 나왔다.

서면 결의 입실은 12시에 종료했으며, 결과를 직원들이 집계 했는데, 제1호 안전은 2020년 결산 보고서 및 이익 잉여금 처분(안)승인의 건, 제2호 안전은 2021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승인의 건인데 참석회원



1,399명의 95%가 찬성 결의했으며 제3호 안전은 상근이사 선임(정관에 따름)인데 단일 후보로 김승곤 후보를 이사회에서 내정 했는데 참석회원 1,399명 중 1,330명이 찬성해 김승곤 후보가 임기 4년의 남광주 새마을금고 상근 이사로 선출되었다.

김민정기자

미혼남녀 44% "올 설엔 데이트 하겠다"

미혼남녀 상당수는 이번 설에 귀향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데이트를 선택했다.

듀오는 최근 20~30 미혼남녀 총 400명(남 200명/여 200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귀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3%는 '귀향 계획이 있다', 반대로 '없다'는 44.8%의 응답률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고향에 방문하겠다는 남녀의 목적지는 '경상도'(31.2%), '전라도'(19.9%), '경기도'(18.6%) 순이었다. 귀향 계획이 없는 남녀 중 과반

(72.6%)은 설 명절에 '집에서 휴식'하겠다고 했다.

그 외 '공부'(6.1%), '출근'(4.5%), '근교 나들이'(3.4%), '아르바이트'(3.4%)를 선택했다.

설 귀향 계획이 없는 이유는 '코로나 19'(65.4%) 때문이었다. 이어 '우리 집에서 모일 거라서'(9.5%), '만날 친척이 없어서'(8.4%), '취업 및 시험 준비 때문에'(5.0%) 등 순이다.

귀향은 안해도 '데이트는 하겠다' 50.3%, '데이트를 하지 않겠다' 49.7%다.

오유나기자